

이슈 진단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제2순환도로 요금 징수방식 논란

“하이패스, 편리하나 설치 운영비 수백억”
“카드터치, 저렴하지만 시간 단축에 한계”



5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km·2001년 개통)내 소태요금소에서 한 운전자가 통행료로 현금 1200원(소형차 기준)을 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시대’를 기치로 내건 민선 6기를 맞이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차량 통행 시스템 설치를 놓고 고민한 끝에 시민편의성을 따져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이패스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유지비가 소모되는 하이패스보다는 18억원이면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접촉식 단말기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빠른 하이패스=시민편의가 우선=광주 도심의 주요 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하루 평균 12만3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3개 구간에서 총 1억3000여만원의 통행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민선 6기를 맞이한 광주시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기존 접촉식 단말기 설치 계획을 폐기하고, 하이패스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는 특히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편리성과 고속도로 및 타 지역 민자도로 대부분이 하이패스를 설치한 만큼 전국 도로와의 연계 호환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접촉식 단말기는 현금지급만 하지않을 뿐 운전자가 차량을 멈춘 뒤 단말기에 직접 카드를 접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는 차량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광주시가 하이패스 설치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민자도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접촉식 단말기 설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 지역 민자도로-고속도로-광주 제2순환도로를 논스톱으로 경유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통행료 징수시스템(요금징수 방식)

- ▲유인기계식=차량을 요금소로 유인해 분류된 차종에 따라 근무자가 통행요금을 현금으로 징수
- ▲직접투입식=분류된 차종의 통행요금을 동전 투입기에 운전자가 직접 지불
- ▲전자지불=유인식 시스템에 카드터치를 설치해 교통카드, 전자카드, 후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통행요금을 선불 또는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
- ▲하이패스=차량에 OBU 및 전자카드를 설치하여 요금소에 정지하지 않고 시속 30km 이내로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방식

다만 250억원대에 이르는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운영비용과 연간 2억~3억원대로 예상되는 시설 보수비용 등은 걸림돌이다. 특히 외부에 노출돼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의 특성상 기기의 교체주기가 짧다는 점도 단점이다. 특히 대규모의 예산투입 탓에 설치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시는 해당 구간의 민자사업자인 맥쿼리 등의 시설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18억원짜리 접촉식 단말기 설치도 거부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지 않다. 또 요금을 내지않는 도주 차량이 많은 하이패스의 특성상 미수금을 놓고 시와 사업자간 책임 여부를 다투는 것도 속제다.

광주시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경우 시 자체 예산으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투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렴한 접촉식 단말기면 충분=광주의 차량정책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막대한 설치·유지비가 들어가는 하이패스 시스템보다는 저렴한 비용의 접촉식 단말기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접촉식 단말기의 설치·운영비는 하이패스의 6%수준인 18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용 차량 요금의 2.2%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 하이패스도 운영사에 이용 수수료 1.5%를 줘야한다.

특히 접촉식 단말기는 지금 당장 설치가 가능하고, 하이패스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하이패스는 전체 차로 중 1~2개 차로만 설치하지만, 접촉식 단말기는 모든 차로에 설치한다는 점도 강점이다. 현재 전국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 비중은 47%로, 자칫 일부 차량에만 고속통행 혜택이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하이패스의 단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 하반기엔 수만대의 저렴한 하이패스 기기가 출시되는 만큼 조만간 대부분의 차량내에 하이패스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광주시가 매년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운장현 광주시장도 대규모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은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외관련, 한 도로통행료 시스템 관계자는 “하이패스와 접촉식 단말기 모두 장단점이 있다. 통행량 등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정치 초선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으로 본 문제점

“보건·환노위엔 단 한명 없어
지역과 실리 고려 재조정해야”

재보선 당선 3명 비합리성 지적

7·30 재보선 결과, 4명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경현 의원을 원했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배정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4명의 당선자 중 이개호 의원을 제외하고 권은희 의원은 국방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박광은 의원은 기획재정부위원회에 각각 배정했다.

하지만, 재보선 전부터 권 의원은 안전행정부위원회, 신 의원은 산업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농해수위를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과 나주혁신도시가 지역구인 신 의원에게 명분이 있는 바람이었다.

또 농어촌지역인 4개 군(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은 농해수위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그동안 공약은 물론 당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고 당 원내 지도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부탁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 달리 당내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안행위와 산업위에 야당 몫은 한 자리도 없었고 농해수위에는 야당 몫으로 한 자리만 비어있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권 의

원에게 국방위, 신 의원에게 농해수위 배정을 각각 통보하고 이개호 의원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송승선위원회에 배정하려 했으나 본인의 반발로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3명의 의원 모두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한 것이다.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광주시당·전남도당 또는 지역의 중진의원들, 나아가 의원 본인들과도 실질적인 논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을 제외하고 신 의원이 갑자기 농해수위에 어떻게 배치됐는지, 산업위와 농해수위 소속의 기존 의원들과 바꾸는 논의는 있었는지, 또 새내기 의원의 희망과 지역구 특성,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현황을 파악했는지 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번 19대 전반기 국회 때 17명의 광주·전남 의원들 중 안행위·보건복지위·환노위에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후반기 국회 때도 3명의 새내기 의원을 제외한 14명의 국회의원 중 보건복지위·환노위에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후반기 국회 때도 3명의 새내기 의원을 제외한 14명의 국회의원 중 보건복지위·환노위에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지연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에만 몰리는 현상 때문에 상임위 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당내 상황을 충분히 고려, 이개호 의원 등을 위해 상임위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jkpark@kwangju.co.kr

박영선 “넓은 과거와 단절”

비대위, ‘국민공감혁신위’ 시동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변화와 혁신의 화려한 걸치레가 아닌 근본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 4개월여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한 뒤 “이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의 명칭을 ‘국민공감혁신위원회(가칭)’로 명명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 “넓은 과거와 관행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결별하느냐가 새정치연합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며 투쟁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근간을 둔 생활정치의 실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특히 “공정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정치,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에서 당내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공감하는 원칙과 기율이 바로 선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라공원을 배제하고 선진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선거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 및 구성과 관련,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경(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위는 공감과 혁신에 방점을 두고 운영해 갈 것이며 당 내외 인사를 두루 망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 선임과 관련, 박 위원장은 “당내 여론과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대위원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당 홈페이지나 제 트위터, 페이스북에 추천해 주시면 깊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선거 참패 원인과 관련, “민주당 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석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YNASTY 2014년 Summer Special **그린피 할인 Event**
8월 1일(금) ▶ 8월 31일(일)

특별할인				(단위: 원)			
구분	T/O 시간	할인금	토~일(공휴일)	구분	요일	선호시간	비선호시간
18홀 기준	07:00~07:56	63,000	133,000	1박 2일 (36홀+조식+골프텔)	월~금	176,000	156,000
	08:03~09:00	73,000			금~토	236,000	226,000
	12:20~13:44	93,000			토~일	276,000	266,000
	13:51~14:30	83,000			일~월	216,000	206,000

※특별할인은 한정하지 않으며, 카트비 별도금액입니다. ※1인 무료 라운드상품권은 당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박2일 패키지 요금은 4인 기준 36홀 원로기준입니다. ※상기 요금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할인					
내용	대상	기간/해당요일	그린피 할인 등	비고	
사이버회원 추가할인	신규가입자 및 기존회원	2014. 7. 7일~9. 30일	추가 10,000원 할인	주중, 주말 모두적용	
Lady Day	여성고객 전원	매주 월요일	그린피 63,000원 적용		
그랜드 시니어 할인	만 60세 이상 고객 전원	월~금(공휴일 제외)	추가 10,000원 할인	프린트 신분증 제시	

※남성 복장은 무릎 위 반바지는 착용할 수 없으며 7부 반바지는 허용됩니다. ※위 공히 카트비는 별도이며 중복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DYNASTY 061.320-7700/7777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서암매길 242